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경남 진주동중 김성은 교사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환경보호 지루하다고?

영상, 노래, 그림과 함께라면 이상 無



학생들이 직접 만든 환경보호를 약속하는 다짐나무. 진주동중 제공

“We've got to learn to Reduce, Reuse, Recycle(우리는 절약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해야 해).” 경남 진주동중의 영어 수업 시간.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는 대신 노래를 부른다. 노래 가사에는 환경보호의 실천방안인 3R(Reduce, Reuse, Recycle)의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담겨 있다. ‘쇼핑할 땐 비닐 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쓰자’ 또는 ‘안 쓰는 장난감은 기부하자’ 등이 그것이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환경오염을 공부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어 읽기·듣기·말하기·쓰기 역량도 골고루 기른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영상을 보며 깨닫고 △환경보호의 실천방안들을 노래를 통해 배운 뒤 △스스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영어 문장으로 적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다.

김성은 경남 진주동중 영어교사는 중2 영어 교과서 'Every little efforts count'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수업을 기획해 총 2차시에 걸쳐 진행했다. 김 교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묻고 들었다.

눈으로 보고 느끼는 환경오염의 심각성

환경오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부족은 교사로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문제다.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거나, 야외활동 때문에 교실을 비우면서 냉방기를 그대로 틀어두는 모습 등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 김 교사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영어교과에 접목시켰다.

마침 중2 영어 교과서에도 환경을 주제로 한 지문이 있었다. 문제는 해당 지문이 환경보호를 실천해보자고 막연하게 제안하는 선에 그친다는 것. 그러나 학생들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훼손된 환경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을 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즉, 기름 유출로 인해 새카맣게 물든 바다의 모습, 불필요하게 틀어둔 수도꼭지 때문에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는 모습 등을 눈으로 보며 경각심을 가졌던 것. 김 교사는 "글로 읽는 것과 사진·영상을 눈으로 보는 것은 느껴지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며 영상이 수업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때 상황을 설명해주는 영어자막이 있는 영상을 선택하면 문장을 눈에 익히는 효과가 있어 일석이조다. 김 교사는 "단, 자막은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환경보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해결방안도 찾아봐야 한다. 하지만 '안 쓰는 물건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자' '쓰레기가 생겼다면 무작정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 하자' 등의 문장을 그저 읽기만 하면 학생들은 금방 지루해한다. 반면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이 가사에 담겨 있는 노래로 부르면? 눈빛부터 달라진다.

예를 들어 'When you're too big to play with your toy, Give them to other girls and boys(너가 장난감을 갖고 놀기엔 너무 컸다면, 어린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자)'는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이라 집중력이 떨어지기 십상.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배우면 신이 나고,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김 교사는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소리 내서 말해보게 되기 때문에 회화능력도 신장된다"고 말했다.

약속, 나무에 담아 '푸르게 푸르게'

다음은 스스로 환경보호 실천방안을 고민하고 문장으로 적어보는 시간. 하지만 작문은 영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도 쉽지 않다. 이에 김 교사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인터넷 검색을 함으로써 작문의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단, 검색의 키워드는 교사가 조언해주는 것이 좋다. 가령 '양치할 때는 양치컵을 사용하자'는 문장을 적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키워드 'tooth cup(양치컵)'으로 검색해보라고 알려주는 식. 김 교사는 "검색한 문장들은 책

또는 기사의 일부인 경우가 많아 번역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완성도가 훨씬 높다”면서 “또한 스스로 검색해보면서 정보 활용 능력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문한 문장을 활용해 ‘환경보호를 다짐하는 약속나무’를 만들며 심미적 감각도 기른다. 나뭇잎 모양 종이 안에 작문한 문장을 쓰고, 이 나뭇잎을 미리 전지에 그려둔 나뭇가지 위에 붙이는 것. 이때 교사가 “나뭇잎을 많아질수록 그림도, 지구도 더 아름다워질 거야”라고 말해주면 학생들은 활동 자체를 매우 뿌듯해한다. 김 교사는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면서 읽기·쓰기·듣기·말하기 등 언어의 4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익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학생 수준에 맞는 영상 선택이 관건”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튜브에는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수없이 많은 영상이 있고, 각각의 영상마다 내용이나 자막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사가 먼저 영상들을 훑어보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골라두어야 한다.

또한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영상을 시의적절하게 이용하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Q. 수업의 효과는?

수업 이후 학생들의 행동에서 변화가 보였다. 청소시간에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하거나, 손을 씻고 수도꼭지를 꼭 잠그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소리 내어 말하고, 직접 써보는 수업에서 습득한 내용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친 내용보다 기억에 훨씬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면 배웠던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때 좌절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예전에 환경보호를 다짐하는 약속나무에 적었던 내용을 떠올려보자’고 상기시켜준다면 학생들도 금세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Q.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배운 내용을 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지필평가에 활용했다.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영어 문장으로 적어보자’는 서술형 문제를 출제했던 것.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또 정답을 써내게 되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겨 다음 수업도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돼 효과적이다.

환경보호 나무처럼 산출물을 만들 경우 전지해서 더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면 좋다. 특히 잘한 작품에는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지도하면 “다음번엔 더 잘해야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학생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 교사 역시 행복해진다.

▶김성은 경남 진주동중 영어교사